



평양풍문단

2022년 8월 7일 저녁 5시, 남양 누림아트홀

출연 이민재 송의열 홍철희 강준원 번부의 이지혜 이승이 박윤선 임미나 사현명 양지운 김다임 경미 이어소 박명희
 작/연출 제희찬 | 조연출 이어소 | 무대감독 이창훈 | 조명감독 광두성 | 안무감독 장일승 | 음악감독 김진수 | 예술감독 양진준
 무대디자인 김민섭 | 제작PD 이지혜 | 드라마티크 장명식 | 그래픽디자인 홍동규 | 합경특도봉인 김수 권선녀 | 주화주관 극단 민성

“북한에도 농악이 존재할까?”

시놉시스

2032년, 남과 북은 여전히 종전과 통일이라는 키워드만 외칠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그사이 북한은 자유경제를 비공식적으로 눈감아 주며 시장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는 의식주의 변화, 외래어의 범람으로 이어졌다.

한편, 함경북도 정진시에는 그들의 ‘두레농악’을 지켜가며 전통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들은 매일 밤 아지트에 모여 밀수한 남한의 사물놀이 영상을 보며 열정을 불태운다.

그러던 어느 날, “2034년 피파 월드컵 대한민국 단독 개최! 이를 기념하여 월드컵 사물놀이 챔피언십이 개최됩니다!” 라는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은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데...

기획의도

정치나 체제와 같은 것들은 제쳐두고 온정있는 북한 젊은이들의 삶에 주목한 연극 <평양풍물단>은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극 중 인물들이 진정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렸다.

전통연희가 접목된 유쾌하고 통통 튀는 연극으로 누구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연극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평화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되어지길 바란다.

등장인물



김준희 역 홍철희



이지혜 역 이미주



박윤신 역 심성경



임미나 역 박계옥



사현명 역 장석달



이소이 역 최미정



김미 역 꽃재비인내



김다임 역 꽃재비동생



송의열 역 김혁팔



이민재 역 반민재



변부리 역 미쓰현



김준원 역 연변남자



이아소 역 조선노동당TV7자
외 다수



양지운 역 보위부직원 외
다수



박명희 역 댕고녀

극단 민성은... 국민의 소리라는 뜻의 극단 민성(民聲)은, 관객과 소통하며 연극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2007년 도농복합도시 화성에서 설립되었다.

예술계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화성시와 한국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시민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예술단체가 되고자 한다.